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 ARS

제93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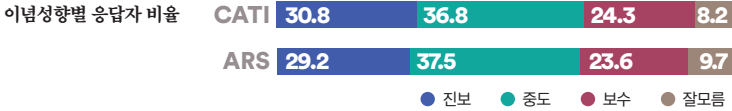
제108차 ARS조사

# 여론조사꽃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 CATI & ARS



###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1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1	100.0	1001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497	49.7	495	49.5	0.99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4	50.3	506	50.5	1.00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60	16.0	156	15.6	0.97
응답률	10.4% [총 통화시도 9,595명]			30대	152	15.2	149	14.9	0.98
조사기간	2024년 11월 29일 ~ 11월 30일(2일간)			40대	178	17.8	176	17.6	0.98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00	20.0	197	19.7	0.98
				60대	169	16.9	175	17.5	1.03
				70세 이상	142	14.2	148	14.8	1.04
			지역	서울	189	18.9	186	18.6	0.98
				인천·경기	323	32.3	322	32.2	0.99
				대전·세종·충청	106	10.6	108	10.8	1.01
				광주·전라	99	9.9	98	9.8	0.98
				대구·경북	99	9.9	97	9.7	0.97
				부산·울산·경남	145	14.5	148	14.8	1.02
				강원·제주	40	4.0	42	4.2	1.05

성별

지역

###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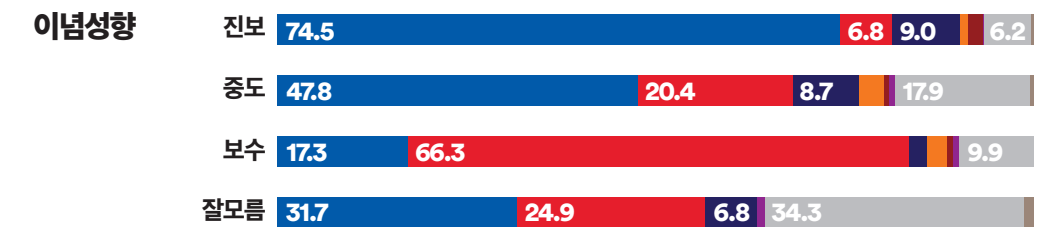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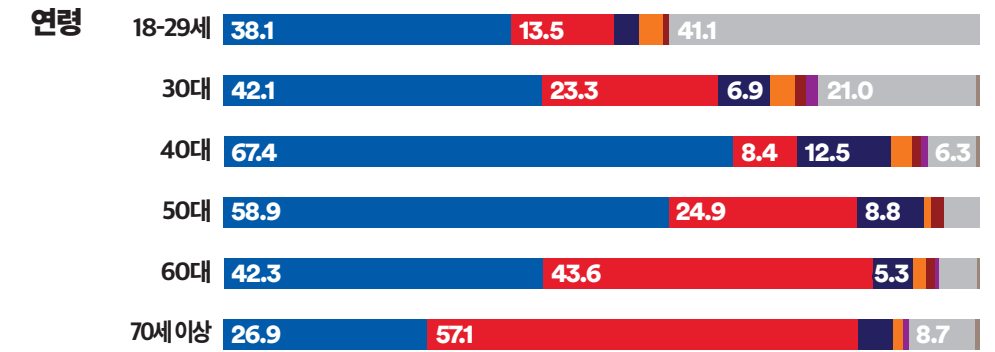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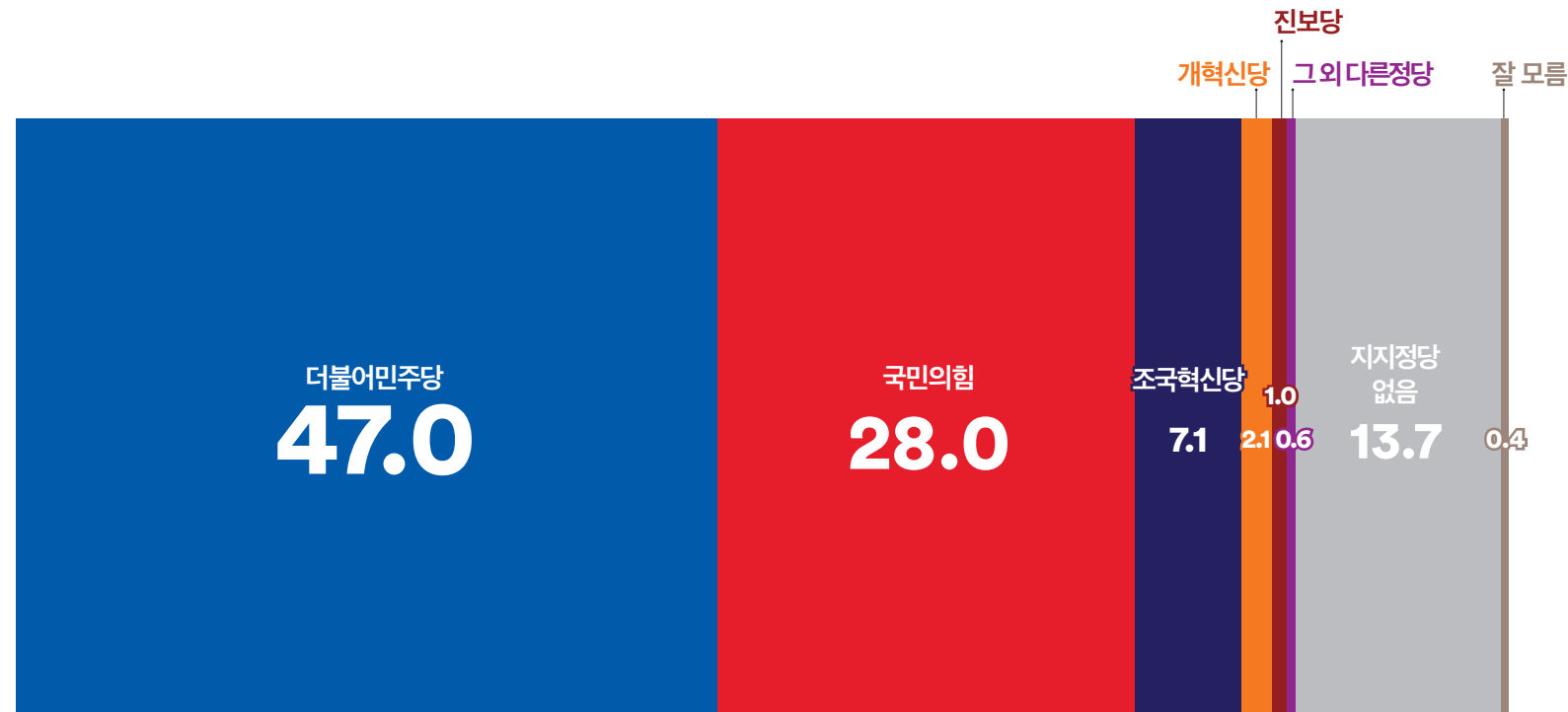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08	50.7	495	49.4	0.97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94	49.3	507	50.6	1.02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연령	18-29세	113	11.3	157	15.7	1.38
응답률	2.2% [총 통화시도 44,690명]			30대	144	14.4	149	14.9	1.03
조사기간	2024년 11월 29일 ~ 11월 30일(2일간)			40대	189	18.9	176	17.6	0.93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4	197	19.7	0.92
				60대	188	18.8	175	17.5	0.93
				70세 이상	154	15.4	148	14.8	0.96
			지역	서울	195	19.5	186	18.6	0.95
				인천·경기	319	31.8	322	32.1	1.00
				대전·세종·충청	108	10.8	108	10.8	1.00
				광주·전라	97	9.7	98	9.8	1.01
				대구·경북	97	9.7	97	9.7	1.00
				부산·울산·경남	150	15.0	149	14.9	0.99
				강원·제주	36	3.6	42	4.2	1.16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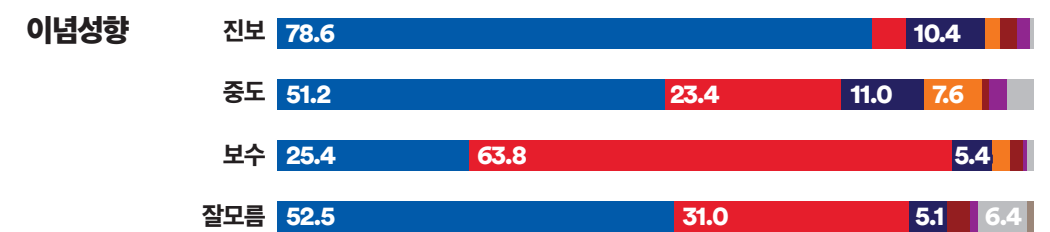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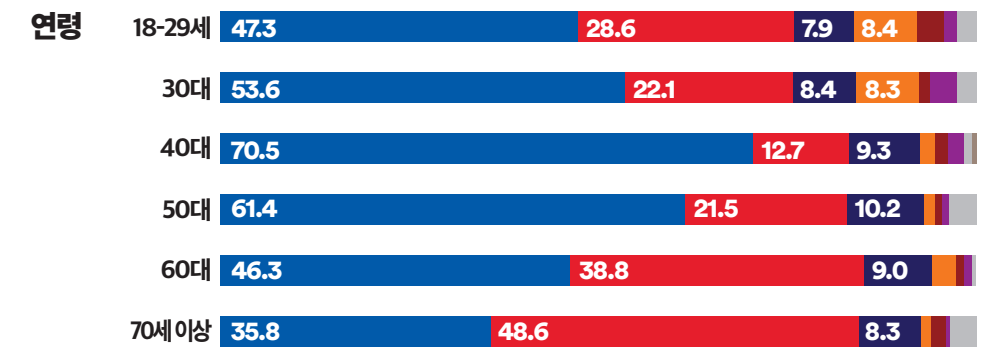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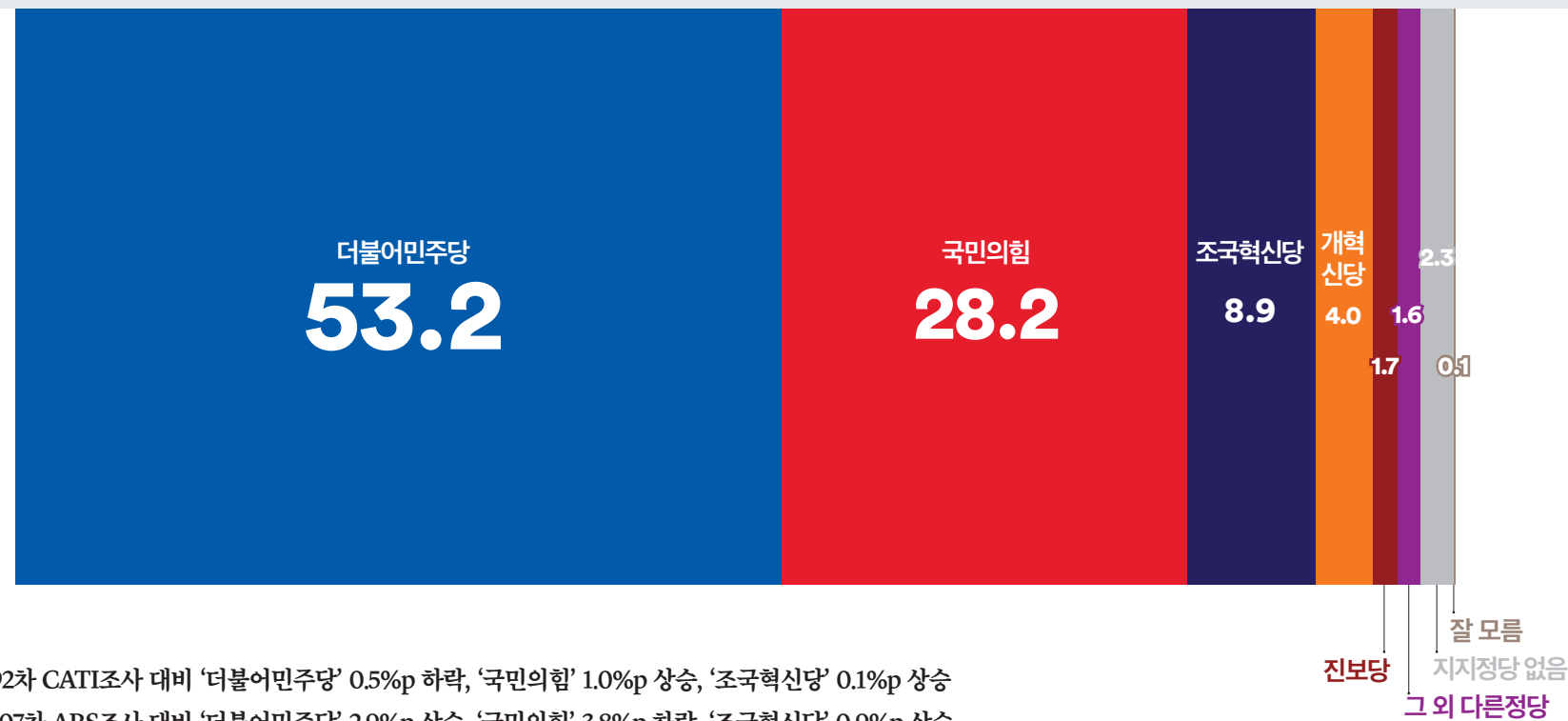
지역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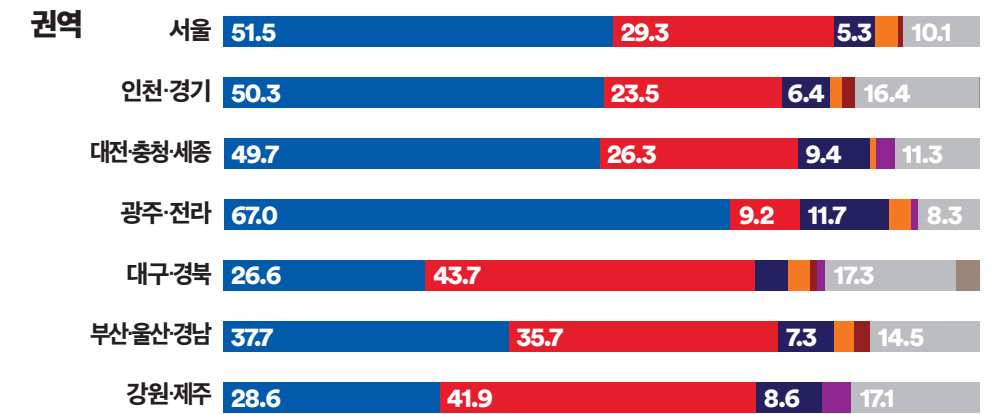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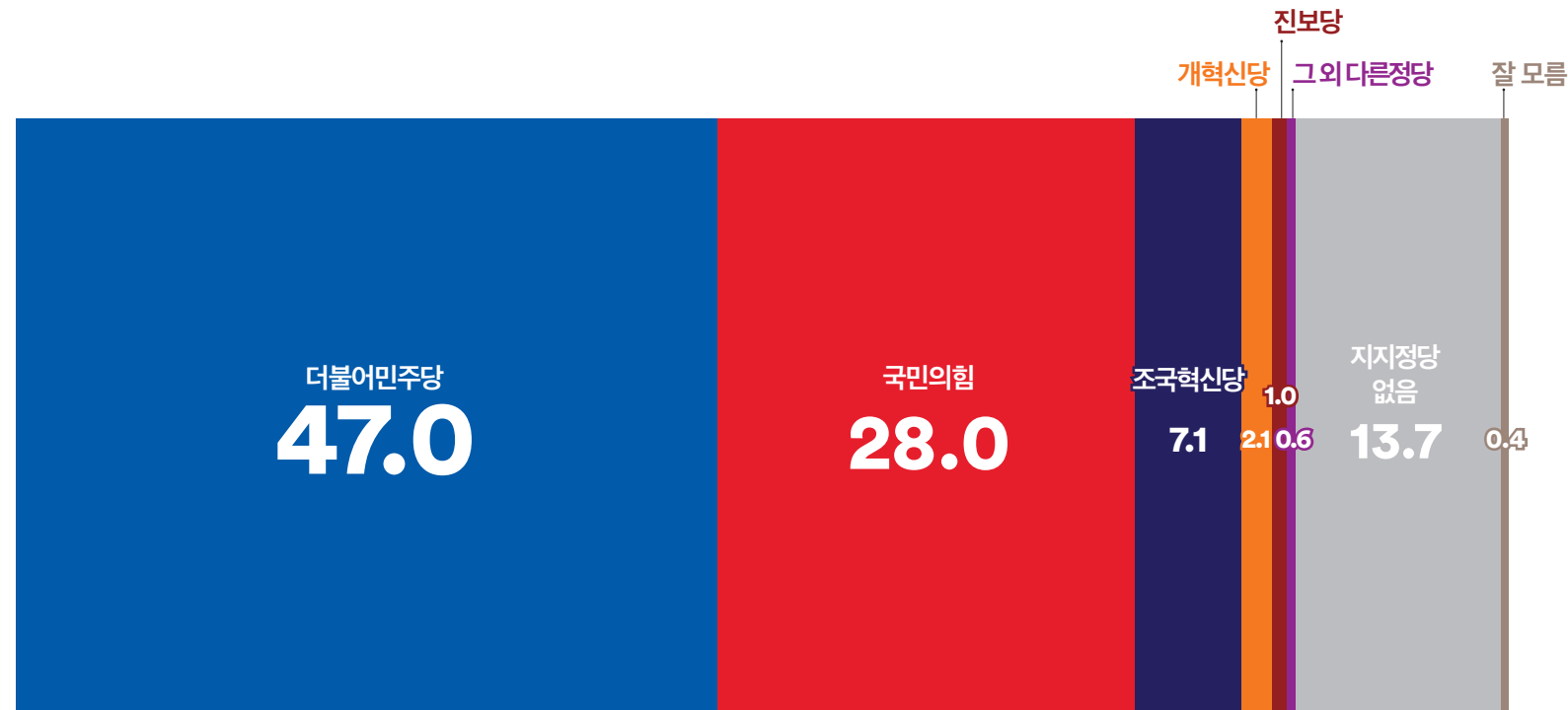


92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5%p 하락, '국민의힘' 1.0%p 상승, '조국혁신당' 0.1%p 상승  
 107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9%p 상승, '국민의힘' 3.8%p 하락, '조국혁신당' 0.9%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19.0%p, ARS 25.0%p(지난 조사: CATI 20.5%p, ARS 18.3%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6.1%p, ARS 33.9%p(지난 조사: CATI 27.5%p, ARS 26.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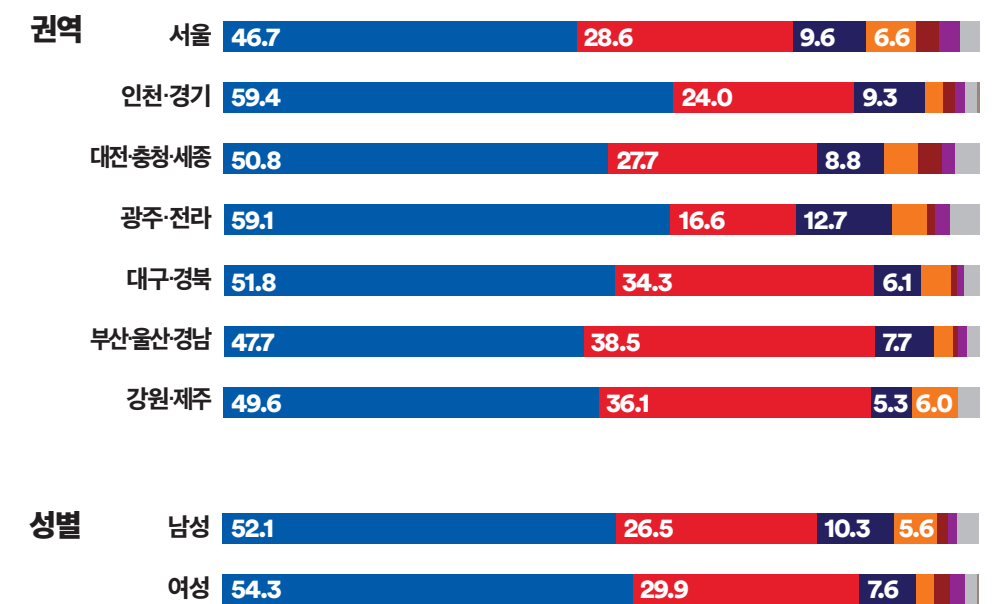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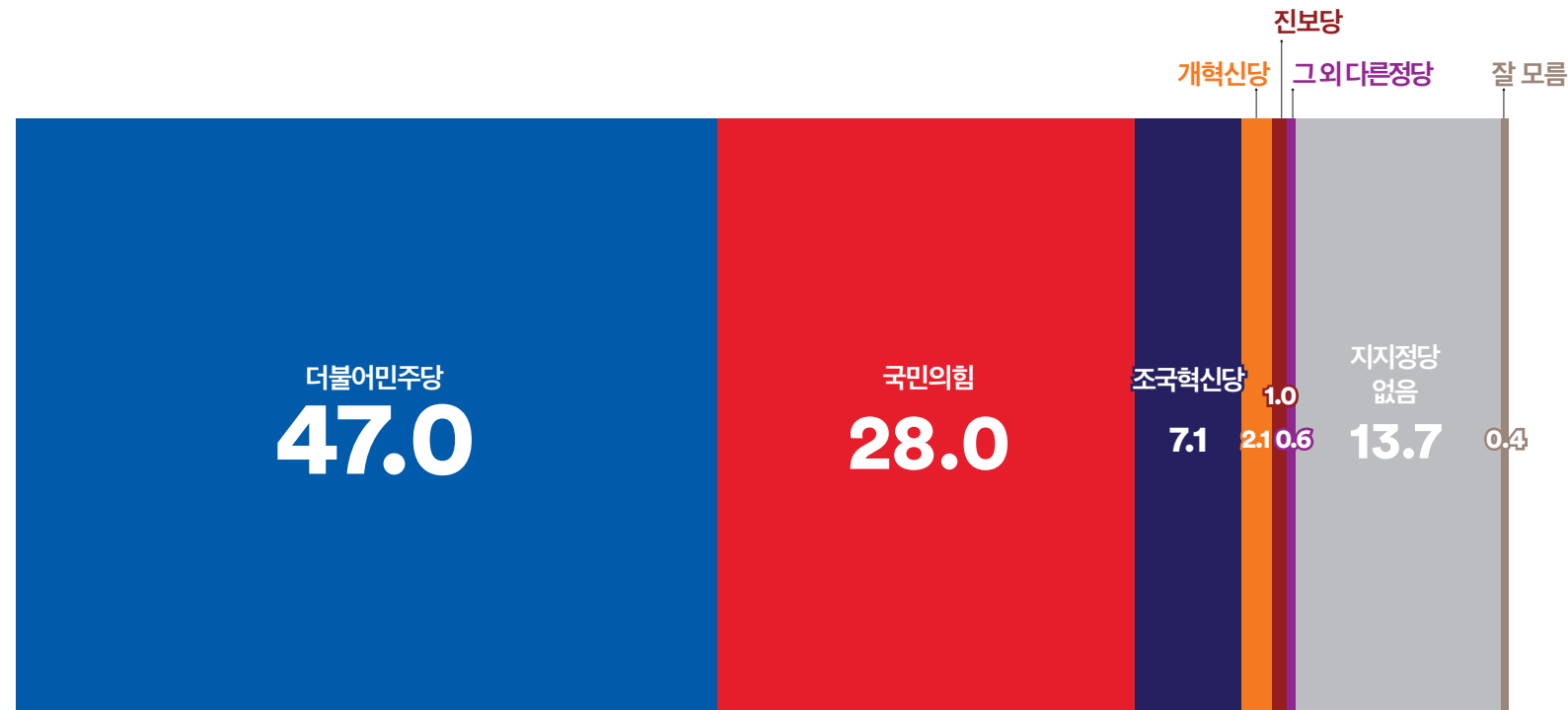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CATI조사의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ARS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앞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ARS TK, PK포함)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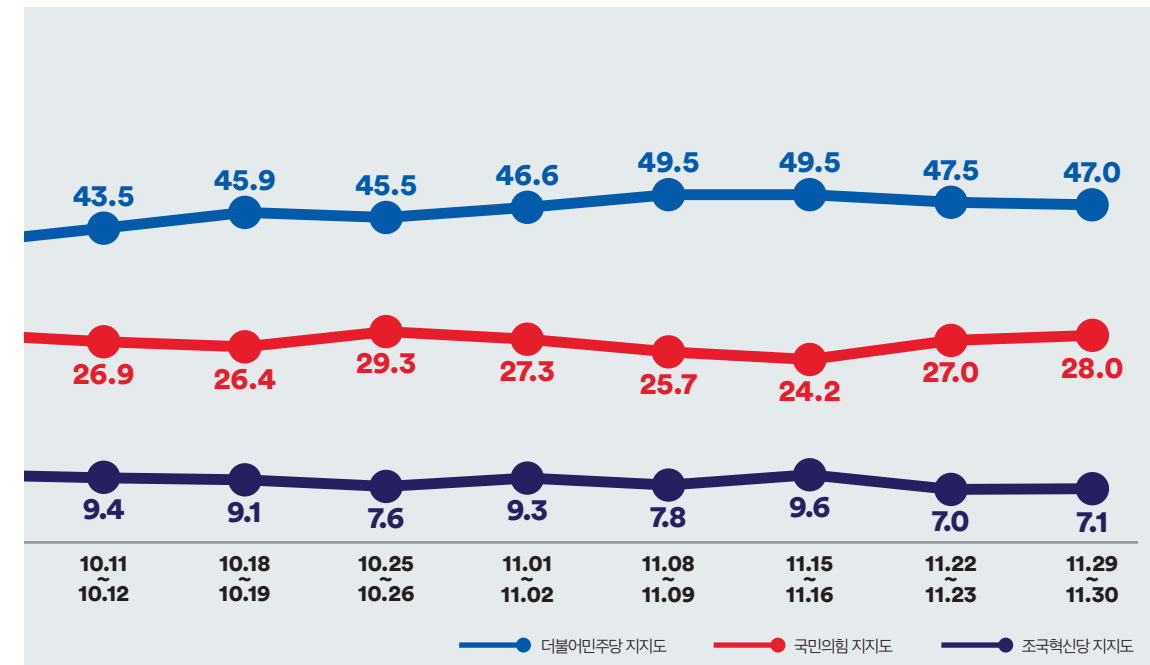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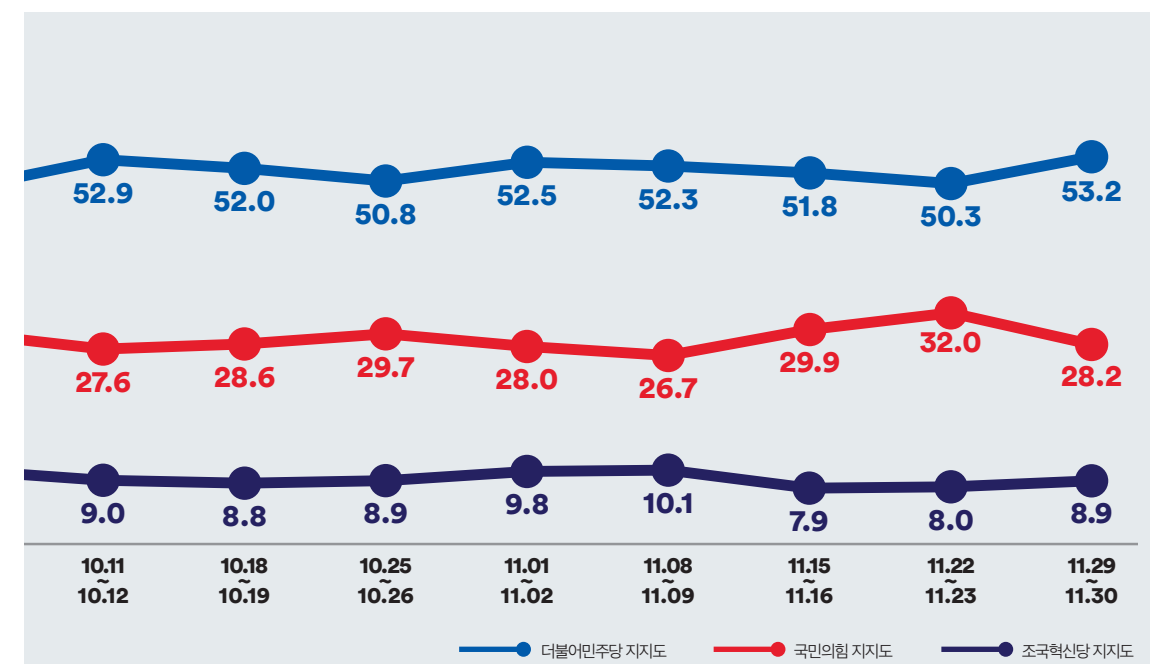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힘' 20.4%, '조국혁신당' 8.7%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1.2%, '국민의힘' 23.4%, '조국혁신당' 11.0%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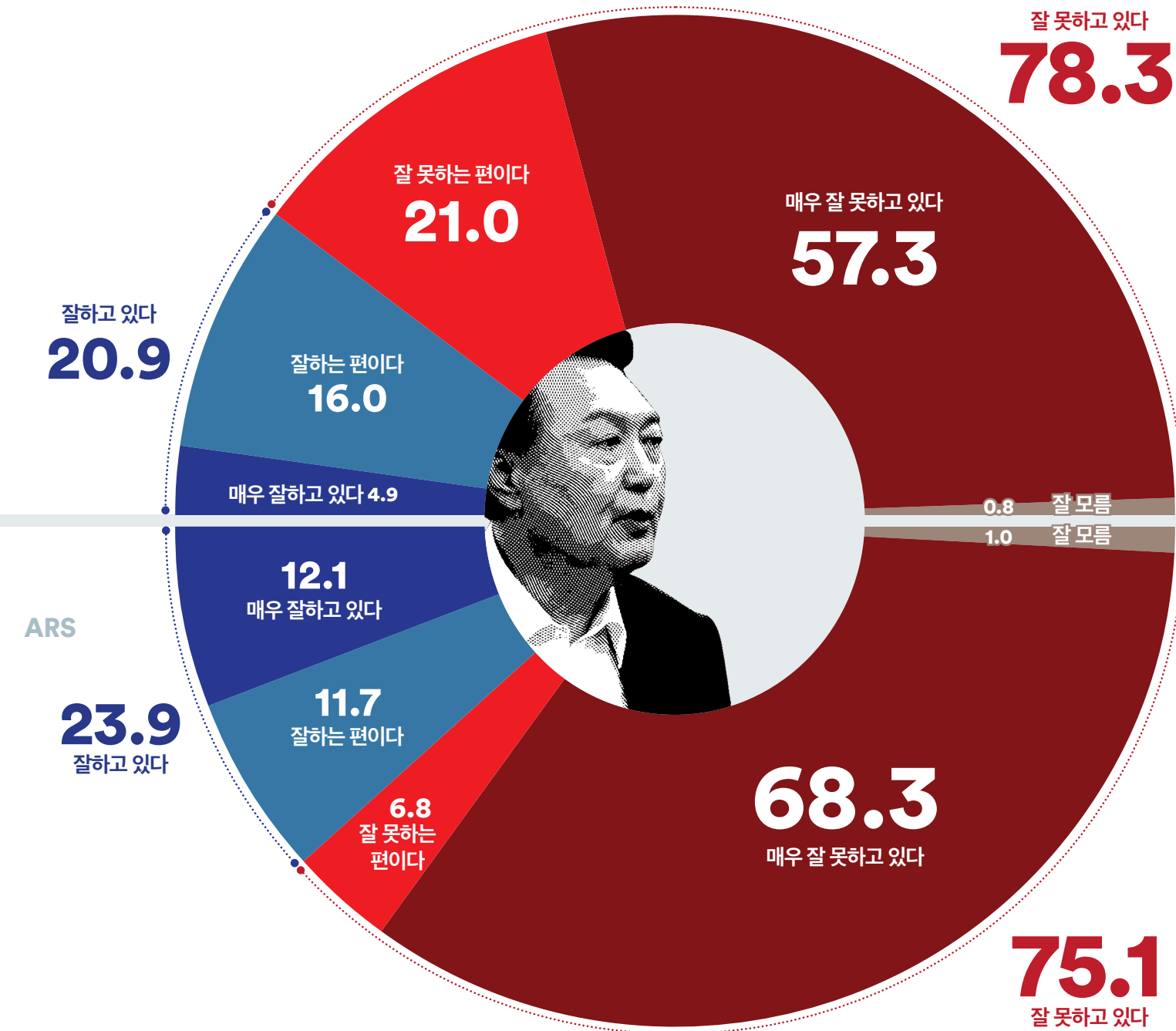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6.1%p(92차: 31.9%p), ARS 38.8%p(107차: 28.9%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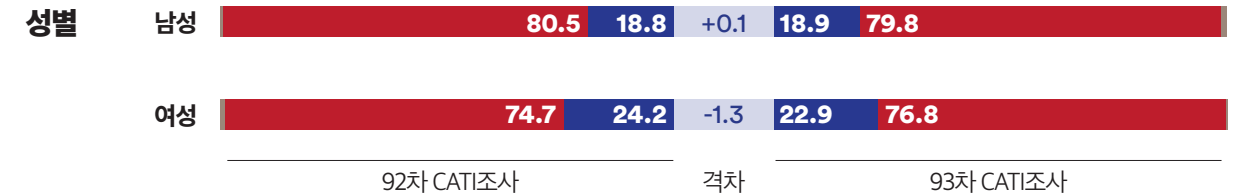


92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0.6%p 하락, '부정' 평가 0.7%p 상승(격차 57.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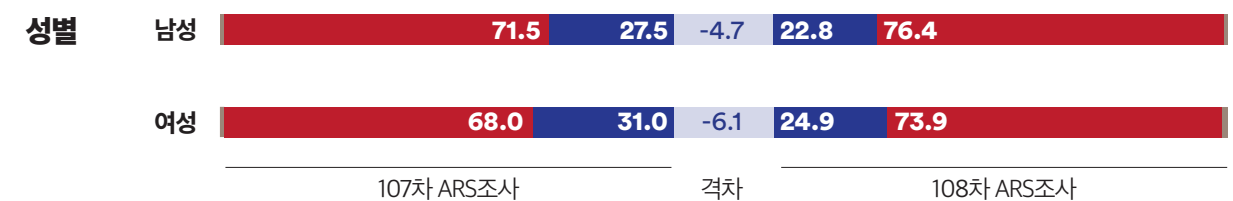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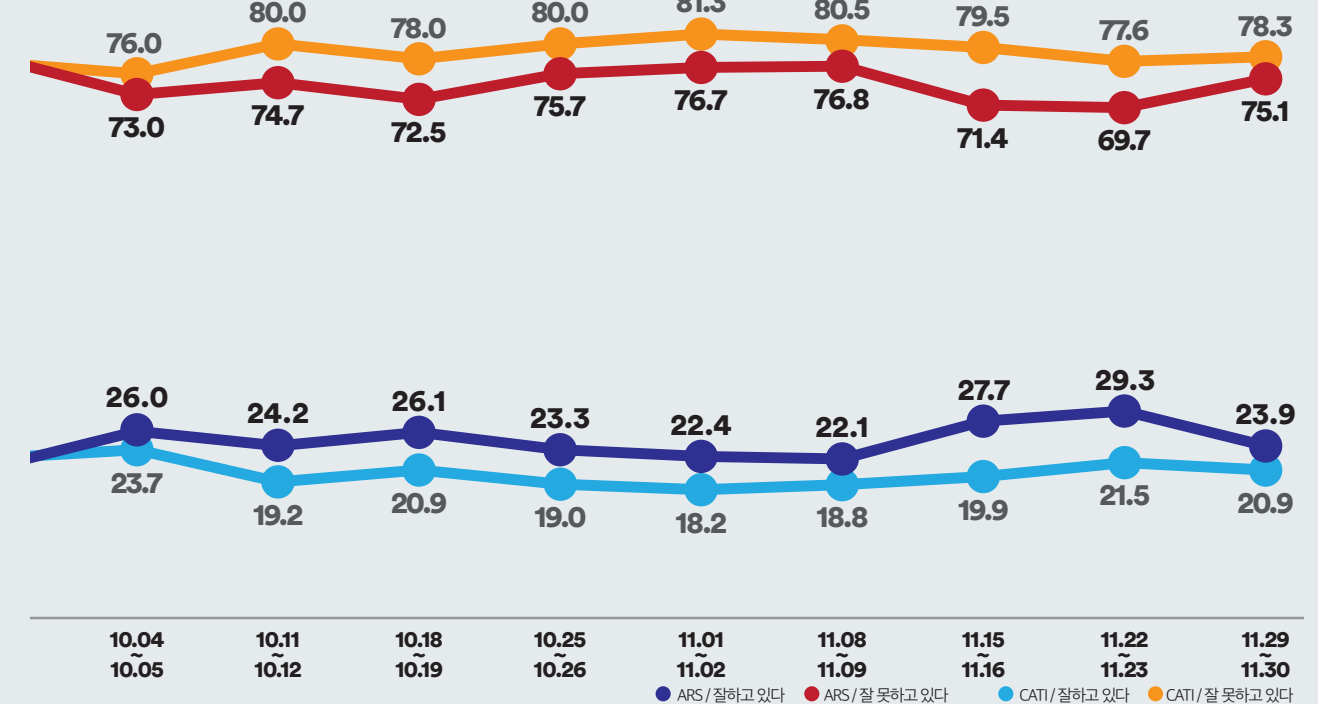
107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5.4%p 하락, '부정' 평가 5.4%p 상승(격차 51.2%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성별,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두 조사 모두 중도층의 '부정' 평가가 지난 주보다 상승, 평가 간 격차는 CATI 73.1%p(지난 조사: 61.7%p), ARS 58.2%p(지난 조사: 45.3%p)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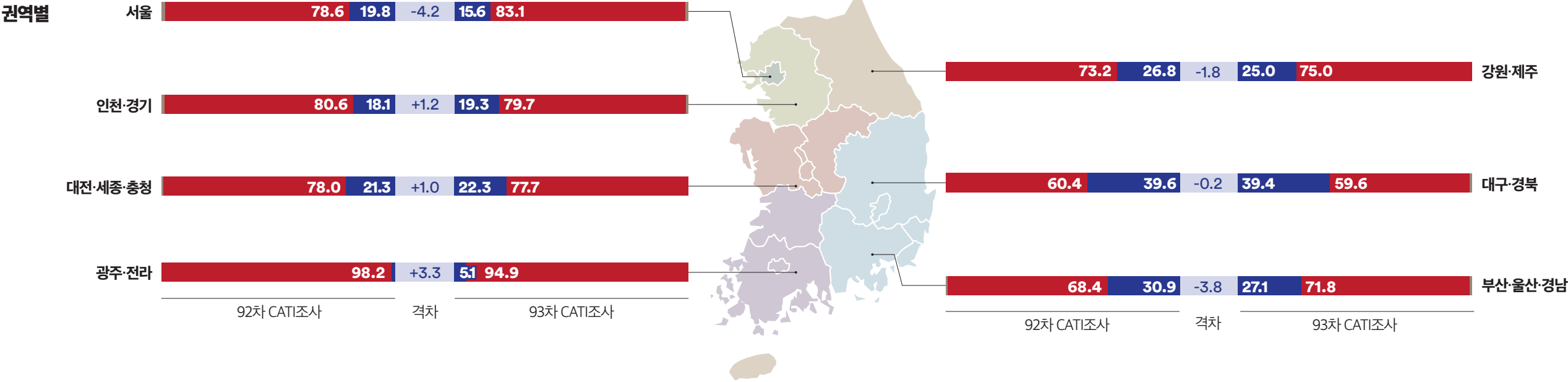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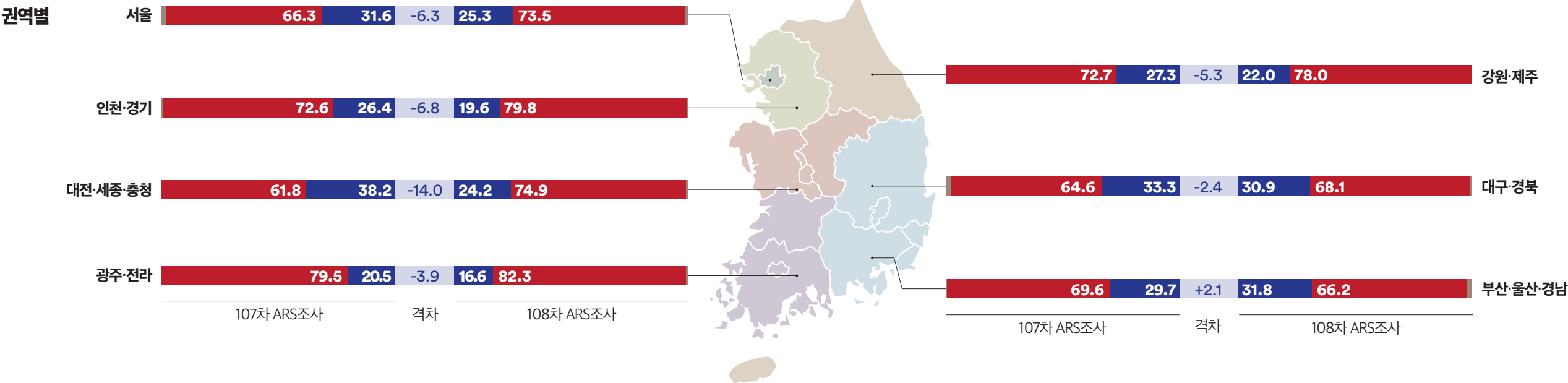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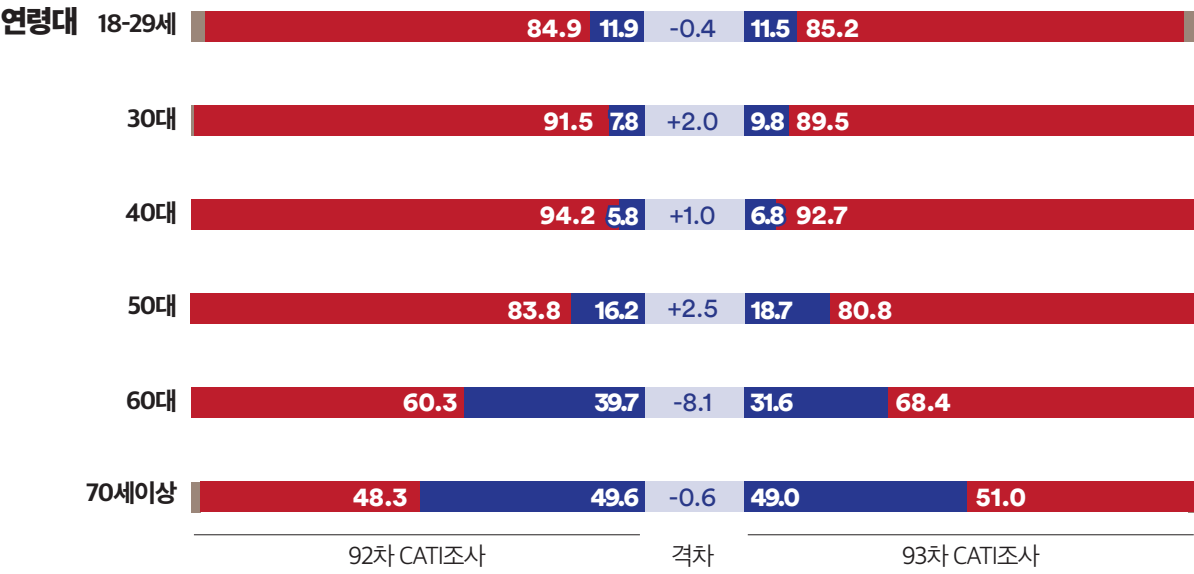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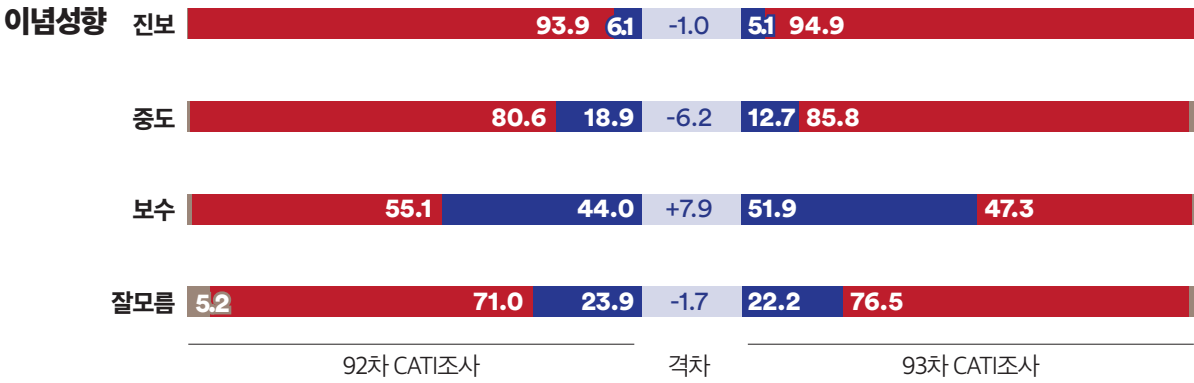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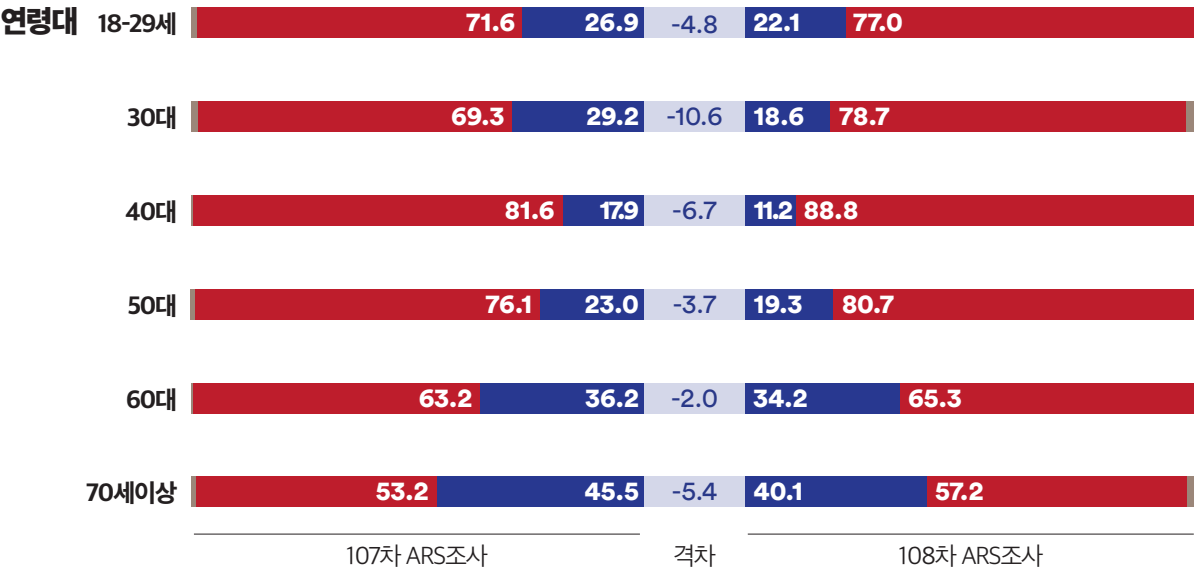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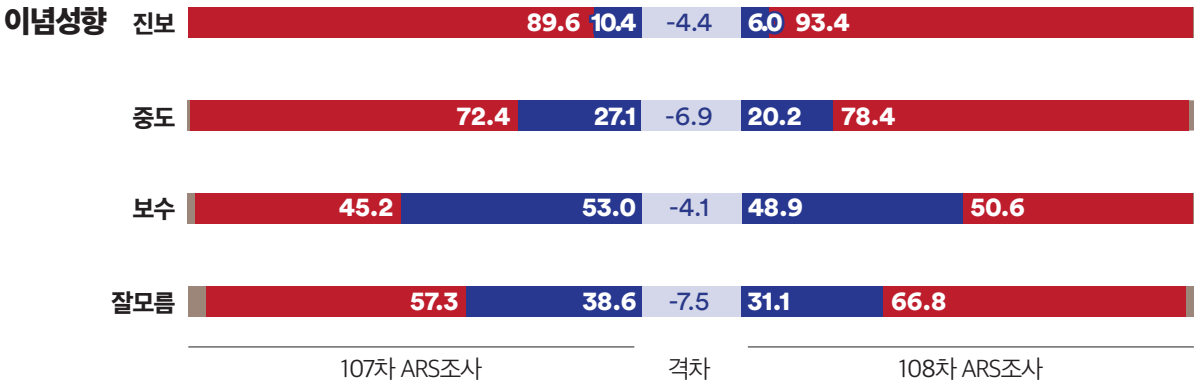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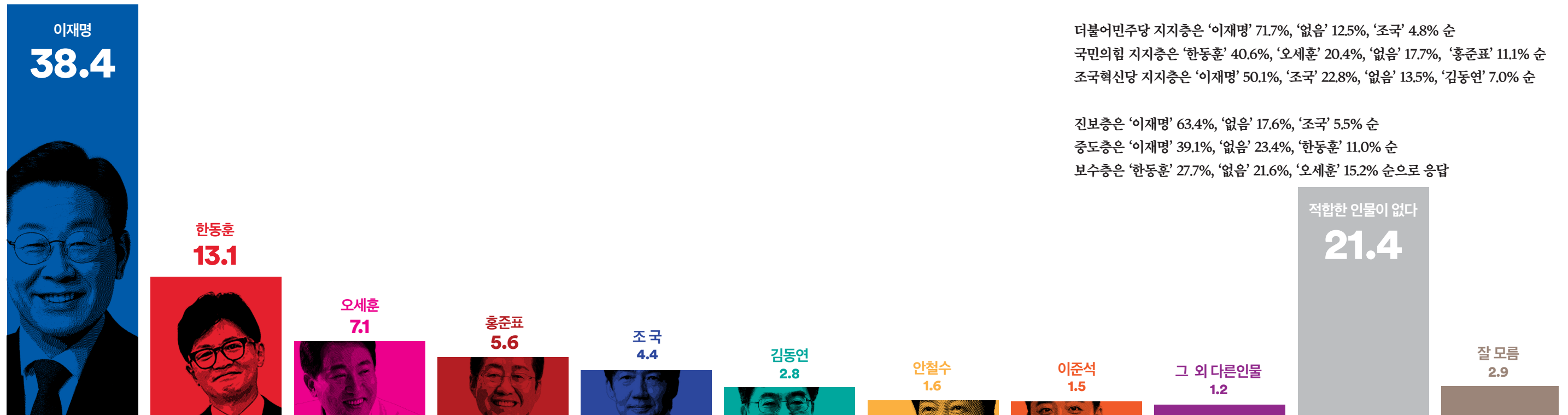
모르겠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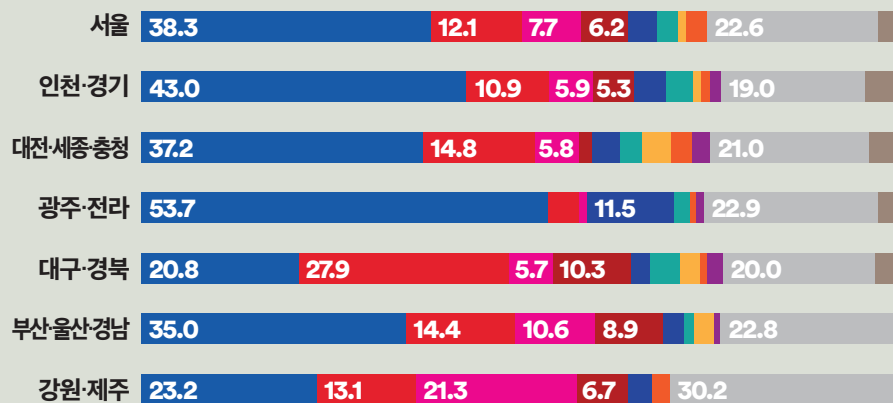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25.3%p)  
TK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우세  
40~60대 응답층에서는 ‘이재명’,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많음  
18-29세 응답층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 38.0%, ‘이재명’ 17.9%, ‘홍준표’ 11.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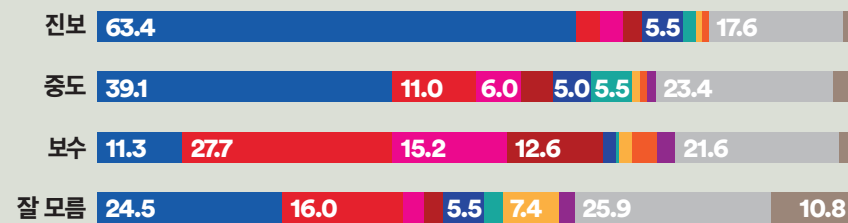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71.7%, ‘없음’ 12.5%, ‘조국’ 4.8%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40.6%, ‘오세훈’ 20.4%, ‘없음’ 17.7%, ‘홍준표’ 11.1%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50.1%, ‘조국’ 22.8%, ‘없음’ 13.5%, ‘김동연’ 7.0% 순

진보층은 ‘이재명’ 63.4%, ‘없음’ 17.6%, ‘조국’ 5.5% 순  
중도층은 ‘이재명’ 39.1%, ‘없음’ 23.4%, ‘한동훈’ 11.0% 순  
보수층은 ‘한동훈’ 27.7%, ‘없음’ 21.6%, ‘오세훈’ 15.2%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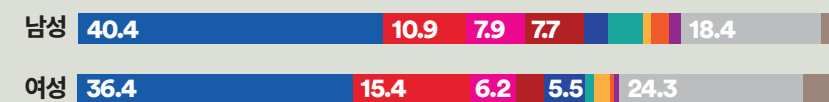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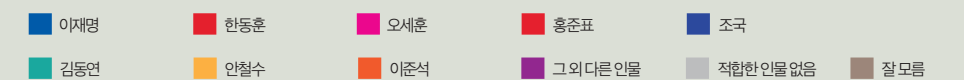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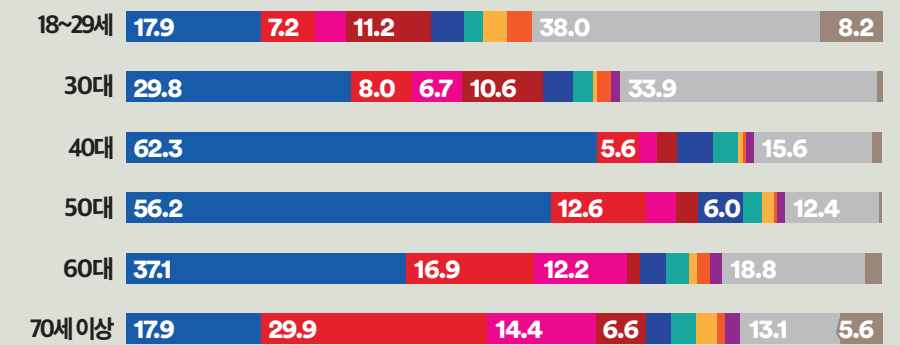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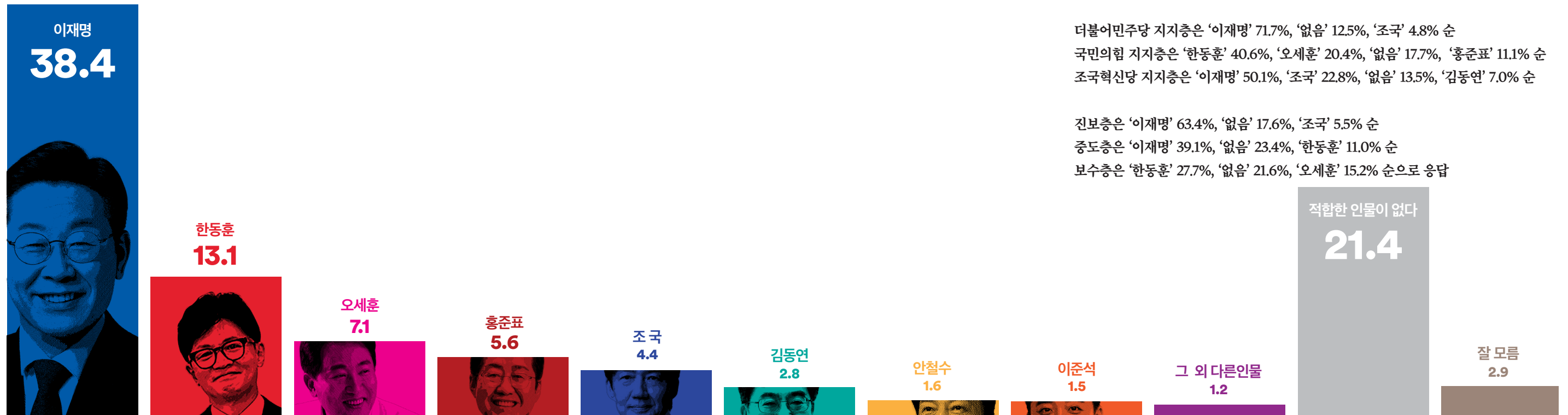


연령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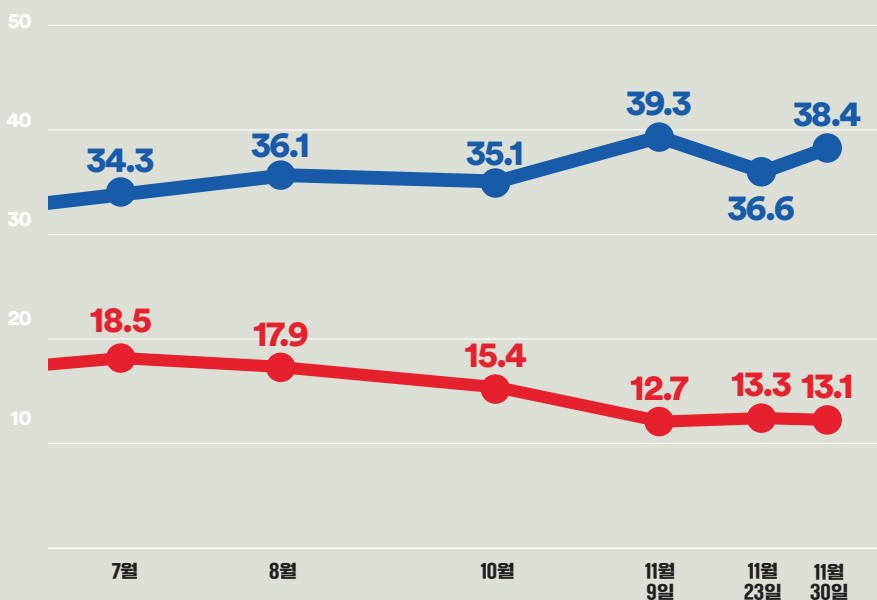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25.3%p)  
TK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우세  
40~60대 응답층에서는 ‘이재명’,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많음  
18-29세 응답층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 38.0%, ‘이재명’ 17.9%, ‘홍준표’ 11.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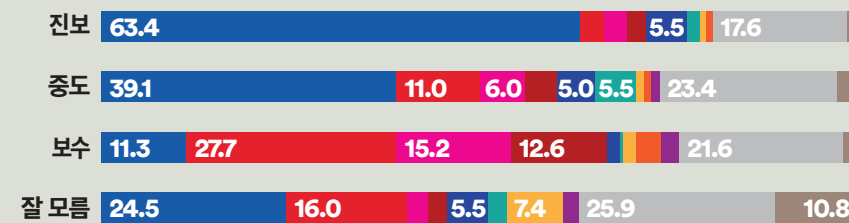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71.7%, ‘없음’ 12.5%, ‘조국’ 4.8%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40.6%, ‘오세훈’ 20.4%, ‘없음’ 17.7%, ‘홍준표’ 11.1%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50.1%, ‘조국’ 22.8%, ‘없음’ 13.5%, ‘김동연’ 7.0% 순

진보층은 ‘이재명’ 63.4%, ‘없음’ 17.6%, ‘조국’ 5.5% 순  
중도층은 ‘이재명’ 39.1%, ‘없음’ 23.4%, ‘한동훈’ 11.0% 순  
보수층은 ‘한동훈’ 27.7%, ‘없음’ 21.6%, ‘오세훈’ 15.2%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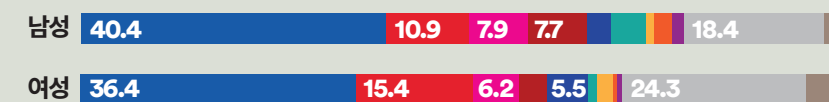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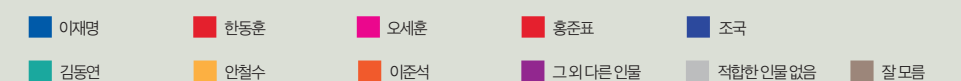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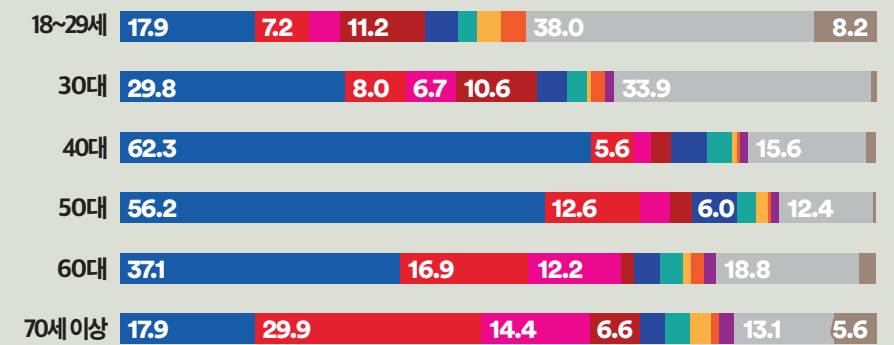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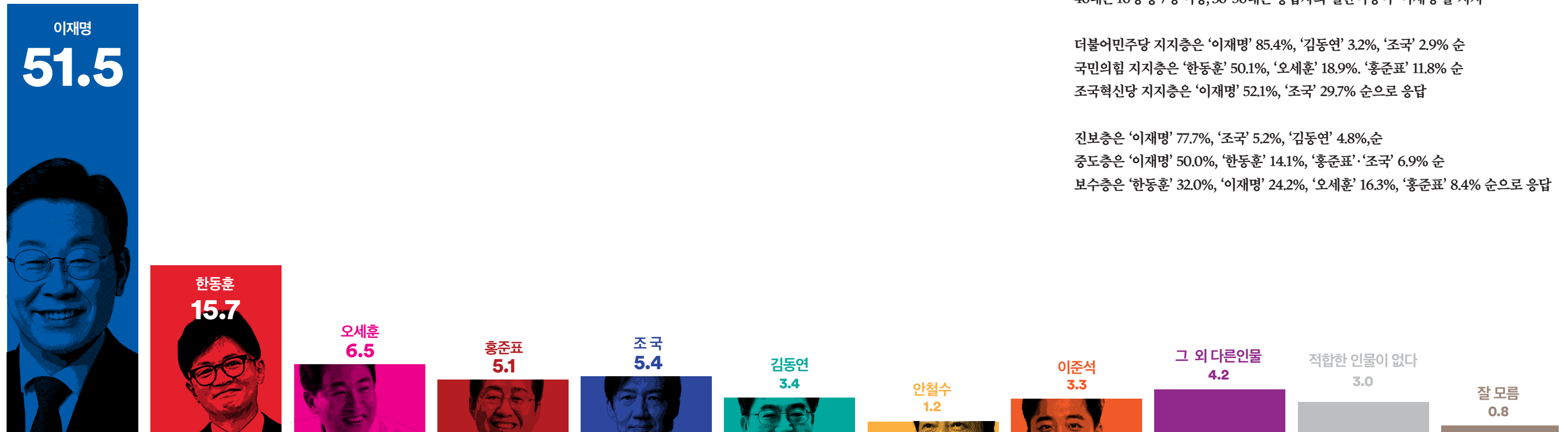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ARS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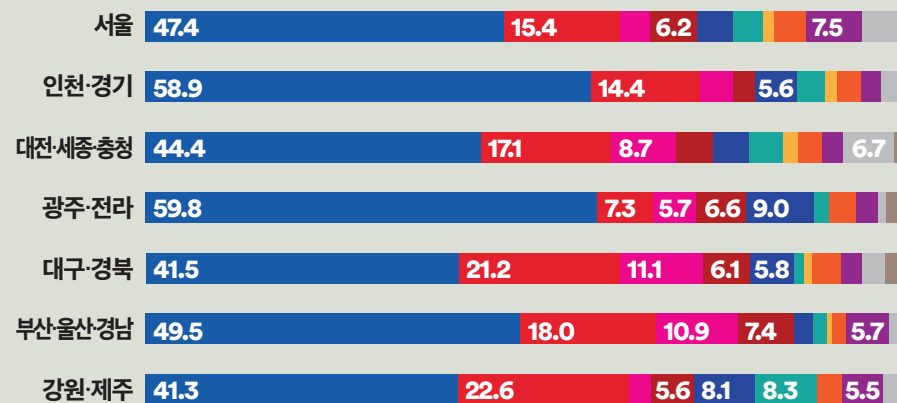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재명’이라고 응답,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5.8%p) ‘이재명’이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도 오차범위 내 앞섬 40대는 10명 중 7명 이상, 30·50대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이재명’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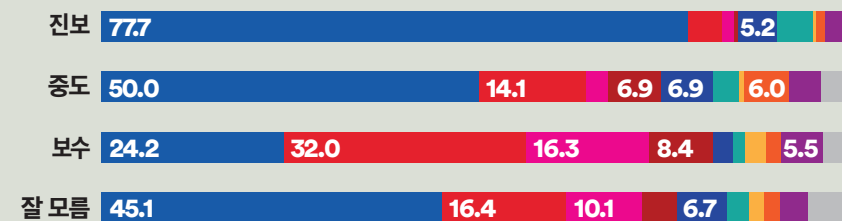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5.4%, ‘김동연’ 3.2%, ‘조국’ 2.9%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0.1%, ‘오세훈’ 18.9%. ‘홍준표’ 11.8%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52.1%, ‘조국’ 29.7%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7.7%, ‘조국’ 5.2%, ‘김동연’ 4.8%, 순 중도층은 ‘이재명’ 50.0%, ‘한동훈’ 14.1%, ‘홍준표’·‘조국’ 6.9% 순 보수층은 ‘한동훈’ 32.0%, ‘이재명’ 24.2%, ‘오세훈’ 16.3%, ‘홍준표’ 8.4% 순으로 응답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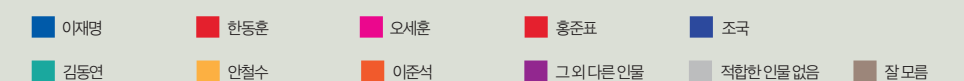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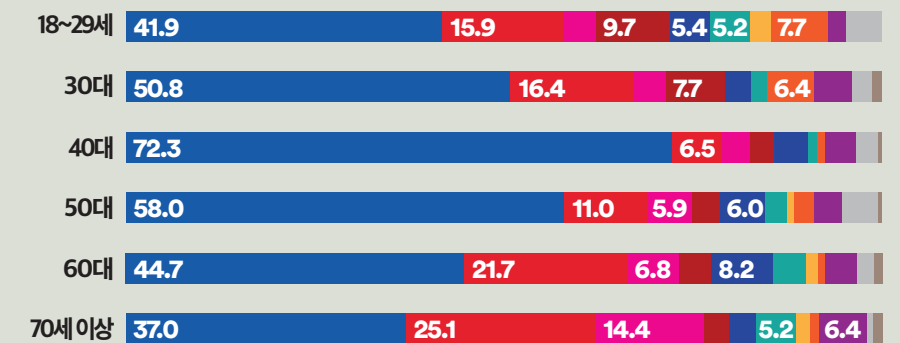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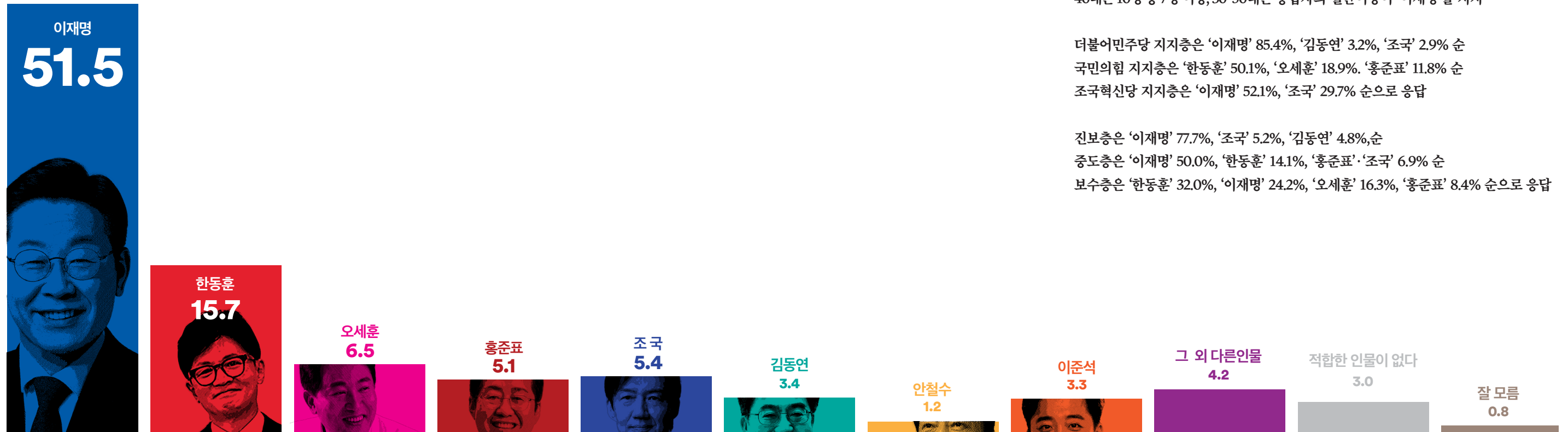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ARS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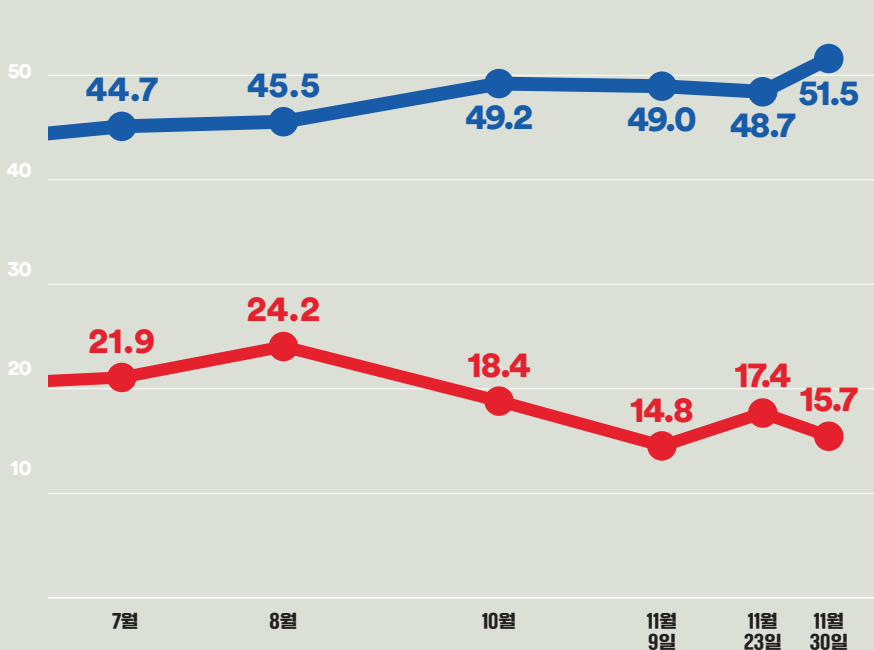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재명’이라고 응답,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5.8%p)  
‘이재명’이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도 오차범위 내 앞섬  
40대는 10명 중 7명 이상, 30·50대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이재명’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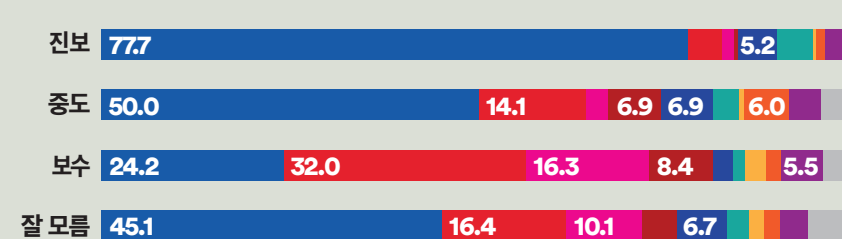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5.4%, ‘김동연’ 3.2%, ‘조국’ 2.9%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0.1%, ‘오세훈’ 18.9%, ‘홍준표’ 11.8%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52.1%, ‘조국’ 29.7%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7.7%, ‘조국’ 5.2%, ‘김동연’ 4.8% 순  
중도층은 ‘이재명’ 50.0%, ‘한동훈’ 14.1%, ‘홍준표’·‘조국’ 6.9% 순  
보수층은 ‘한동훈’ 32.0%, ‘이재명’ 24.2%, ‘오세훈’ 16.3%, ‘홍준표’ 8.4% 순으로 응답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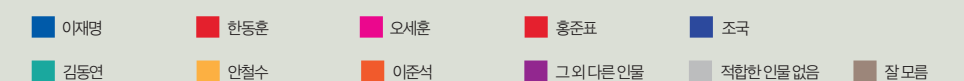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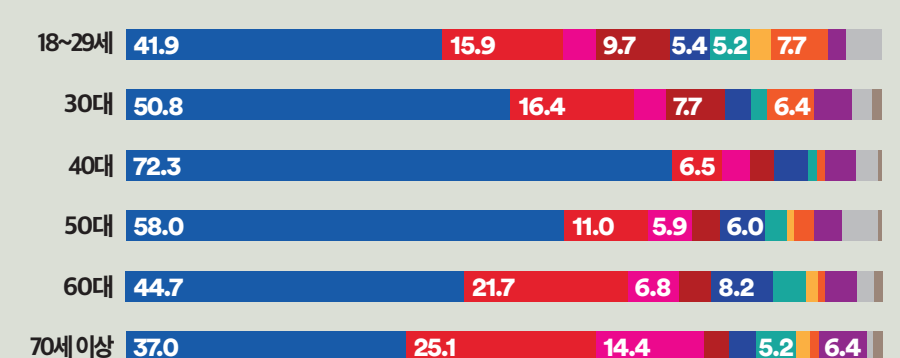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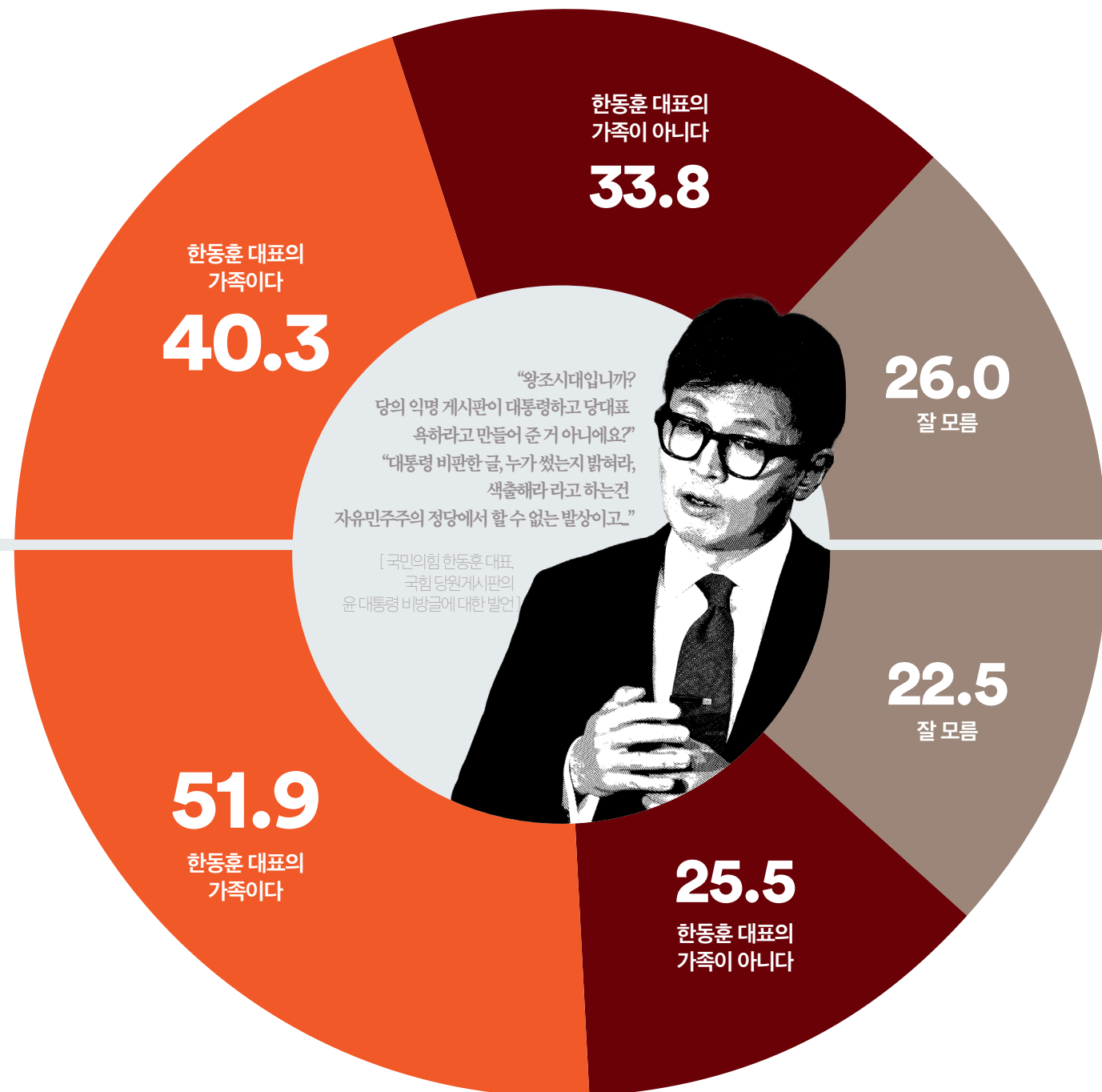
연령



Q.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비판 글들을 실제 누가 작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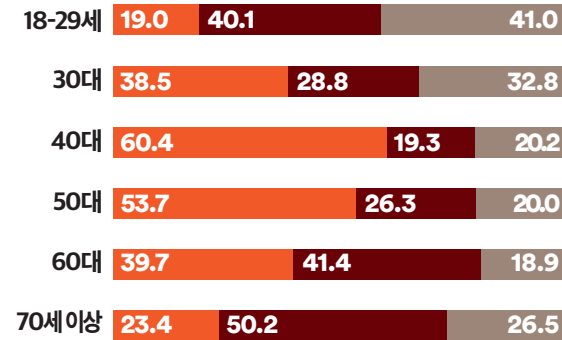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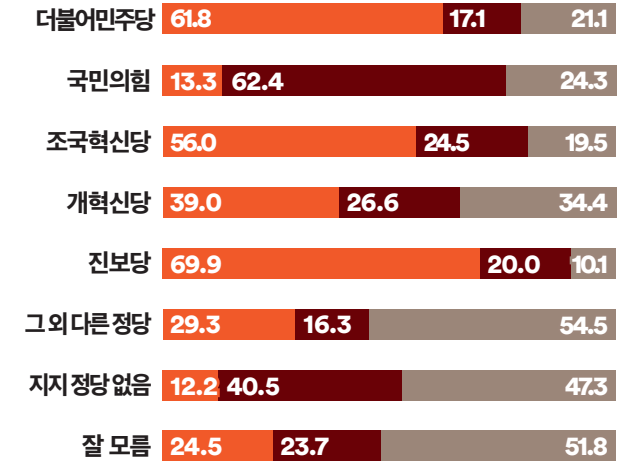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4~5 명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윤 대통령 비방글을 작성했다고 생각 (응답 간 격차: CATI 65%p, ARS 26.4%p)  
CATI조사의 TK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성별에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차기대권주자 질문의 한동훈 지지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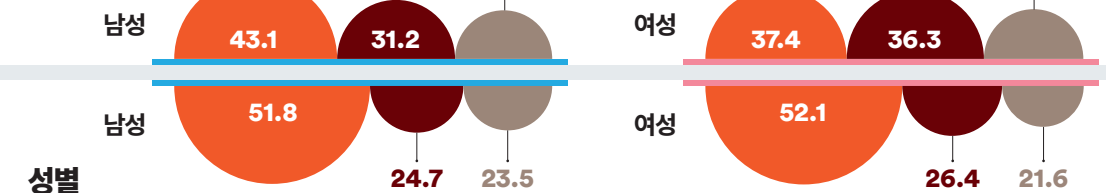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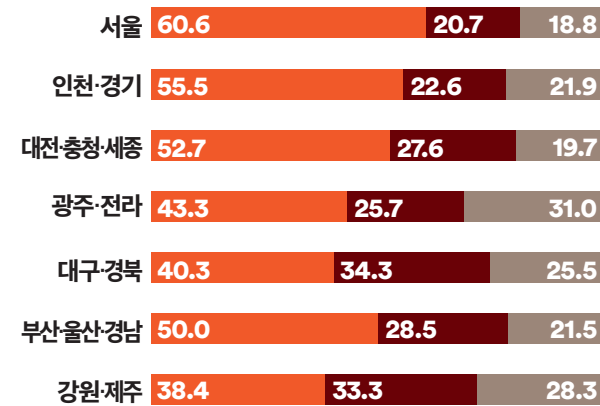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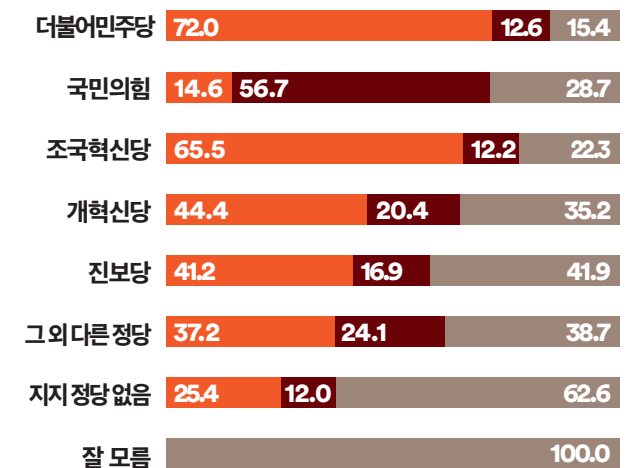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다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니다  
잘 모름





명태군씨의 서울시장 선거 관여

Q. 명태군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김한정 사장님이란 분이 추후에 3300만원을 줬다, 혹은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것을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는거죠”

“김한정씨라는 분은 저를 후원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었던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분의 존재감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후원자 중 한분 정도.”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도 아, 이분이 또 이렇게 사고 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마 본인도 지금쯤은 뭐 저를 돕는다는 의지에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에게는 도움보다는 폐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군씨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개입에 대한 입장 중]

오세훈 시장 후원자가  
수천만 원을 지급한 정황 등을보아  
사실일 것이다

61.0

오세훈 시장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이 아닐 것이다

23.5

잘 모름  
15.4

ARS

67.0

오세훈 시장 후원자가  
수천만 원을 지급한 정황 등을 보아  
사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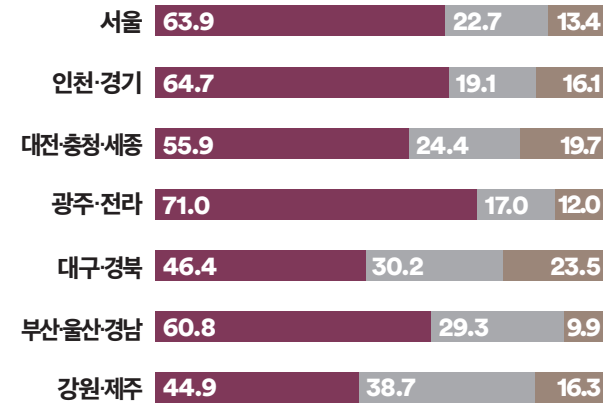
21.1

오세훈 시장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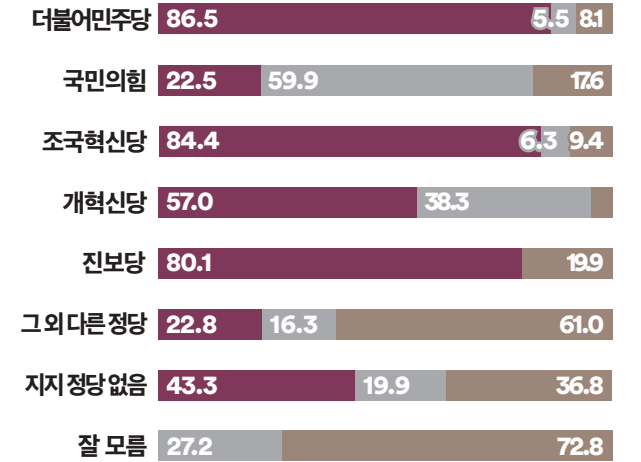
잘 모름  
11.9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명태군 씨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입에 대해서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 (응답 간 격차: CATI 37.5%p, ARS 45.9%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에서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두 조사의 서울시 거주 응답자의 경우에도 전체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사실일 것’이란 응답비율이 우세(서울 시민 응답 간 격차: CATI 41.2%p, ARS 47.4%p)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과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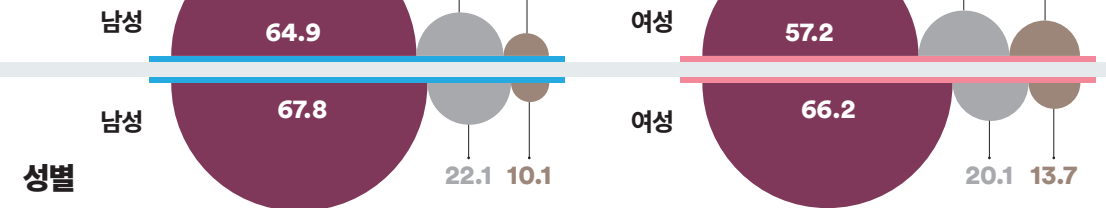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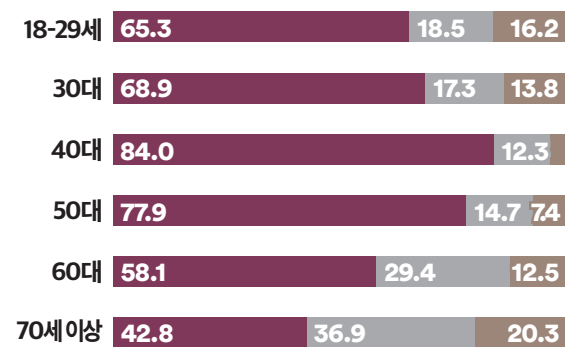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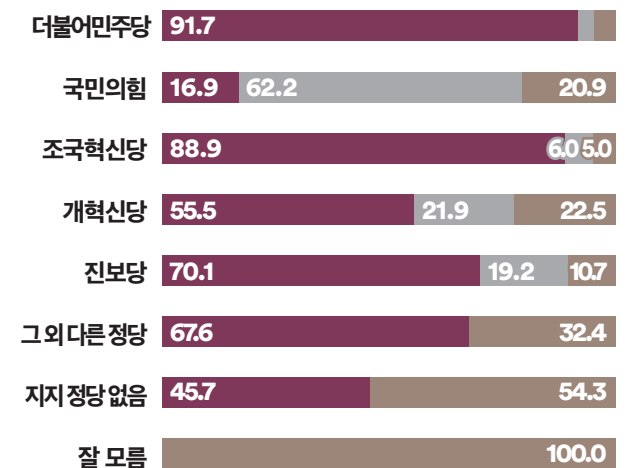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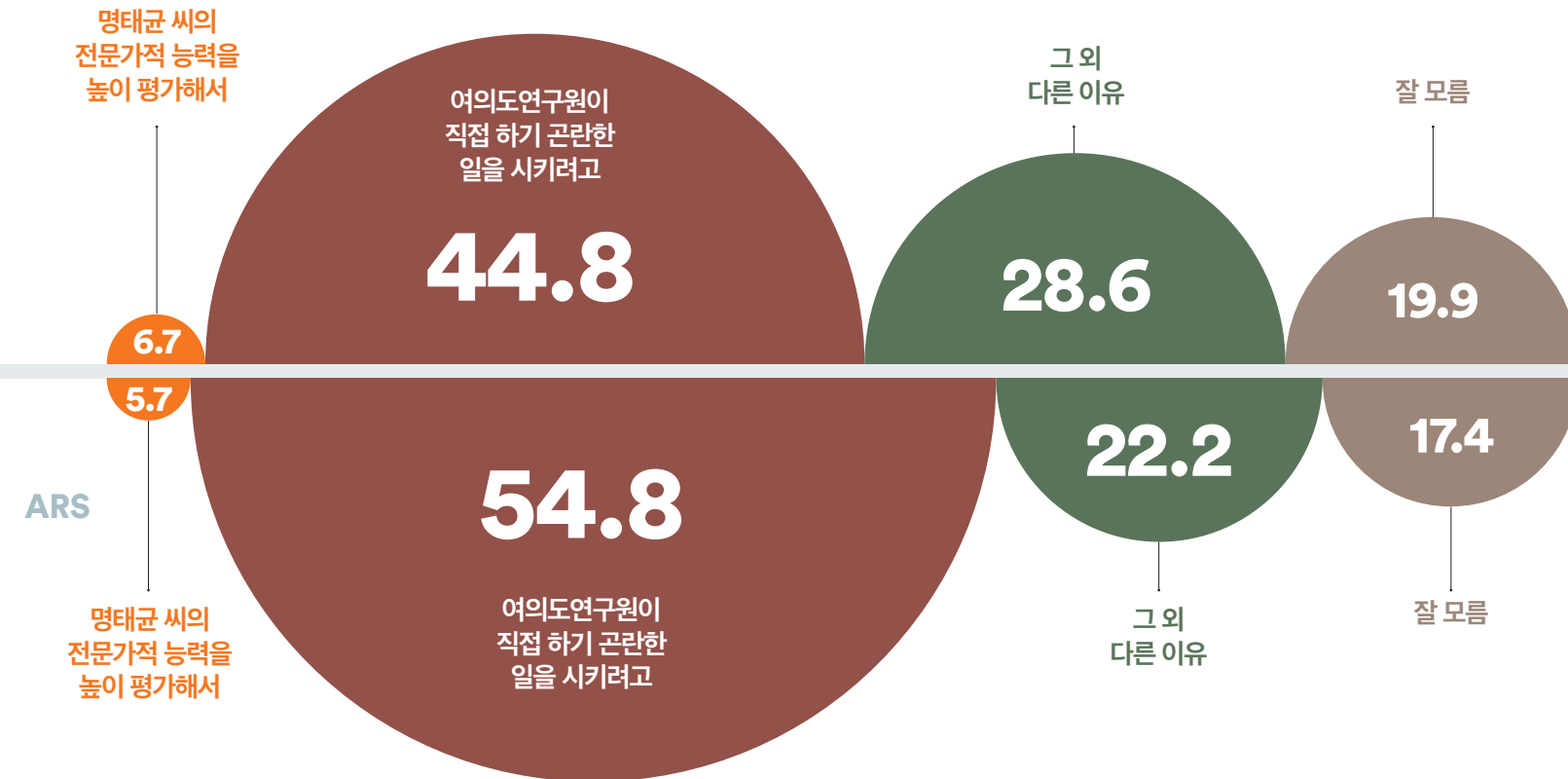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 사실일 것이다 ■ 사실이 아닐 것이다 ■ 잘 모름

Q.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자체 여론조사 기능이 있음에도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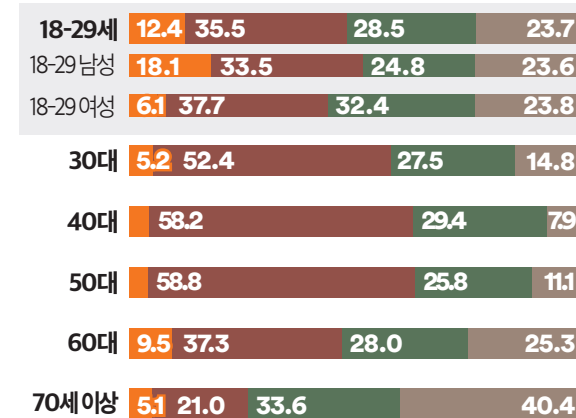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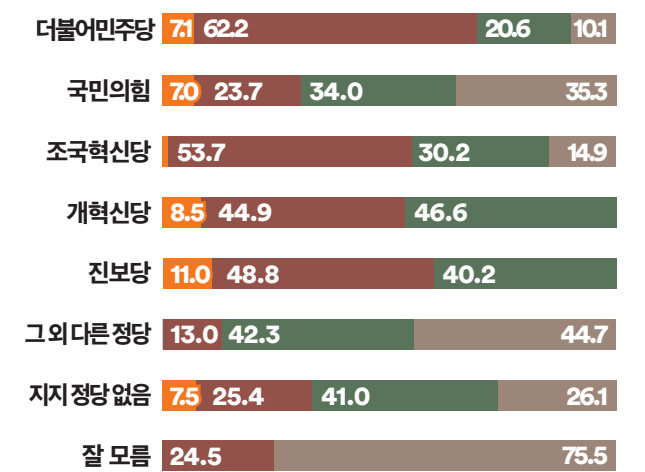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4~5명 정도는 '여의도연구원이 직접하기 곤란한 일을 시키려고' 외주를 주었다고 응답  
명태균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의견은 5~6%에 불과했고, '그 외 다른 이유'라는 응답은 10명중 2~3명 정도  
'명 씨의 전문성'+ '그 외 다른 이유'라는 응답의 합계를 비교해도 '곤란한 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두 조사의 모든 권역, 70세 이상 응답자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곤란한 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응답이 우세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직접하기 곤란한 일'을 시키려 했다는 응답이 '명 씨에 대한 전문성 인정'보다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조사에서는 '그 외 다른 이유', ARS조사에서는 '직접하기 곤란한 일을 시키려고'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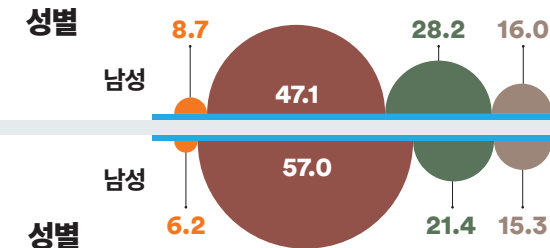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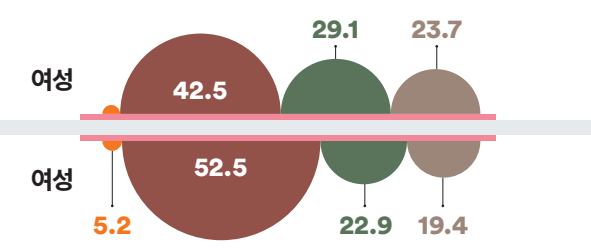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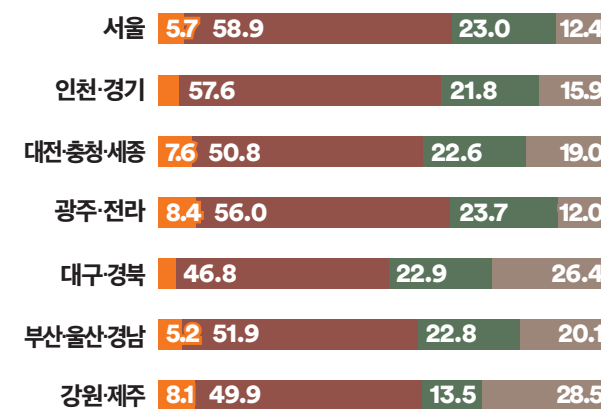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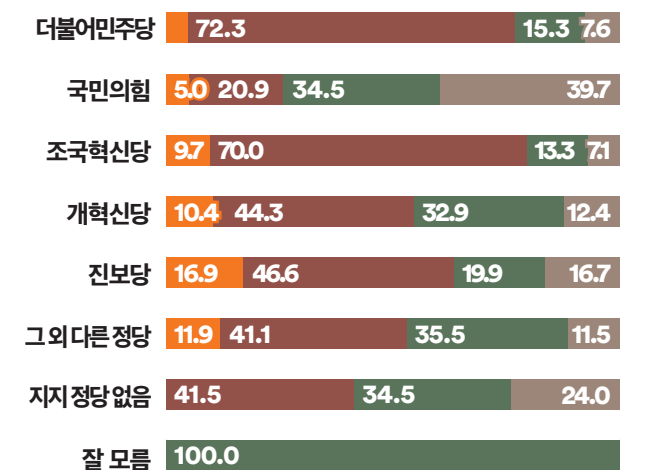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명태균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 직접 하기 곤란한 일을 시키려고 | 그 외 다른 이유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WR\_202412\_01

---